



## ‘인정과 소통’의 길... 한글을 세계로

‘정보화 강국의 무기는 한글’  
한글 정보화 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지역에 한국어문화학교 설립

2006년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해이다.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둔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한글의 정보화와 세계화’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글은 중요한 시점에 맞닿아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정보화는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콘텐츠를 단시일 내에 축적해 내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콘텐츠 구축 능력과 구축된 콘텐츠의 질적 문제가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정보화 강국으로 자부할 수 있었던 역동적 배경으로 한글을 꼽는다.

### ‘한국의 에너지는 한글’

“휴대폰 자판을 볼까요. 자판 10개 내로 모음과 자음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글은 정보화의 축적속도에 있어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능가하고 영어보다 쓰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원장은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글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이상규 원장은 국어학자이자 시인이다. 1979년 <현대시학>에 ‘안개’ 등의 시가 추천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종이나발》, 《대답없는 질문》, 《거대한 집을 나서며》, 《헬리콥터와 새》를 출간했고, 《한국방언학》, 《경북방언사전》등 방언연구에도 업적을 남겼다.

1953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그가 제7대 국립국어원장으로 취임한 때는 올해 1월.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어문정책을 주관하는 기구이다. 한국어 의사소통체계와 보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다중적인 언어사전구축·〈훈민정음〉수출로 한글 세계화

국립국어원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중장기 국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은 컴퓨터에 우리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자동번역, 음성인식, 문서 자동요약 등 언어처리 응용프로그램이 우수한 성능으로 구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560돌을 맞이했던 한글날에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2008년도부터 웹으로 발간한다는 선언도 국어 정보화와 연계되어 있다. 규범적인 웹사전의 구축으로 아시아가 소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국어와 다양한 외국어의 소통을 위한 '다중적 언어' 사전으로서 소리와 문자의 소통이 가능하고 음성언어가 첨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원장은 "다중적 언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와 아시아권 언어의 호환관계가 있어야 하고, 다른 인접 학문을 비롯해서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라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을 관장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한글의 세계화 전략으로 다중적 언어사전 구축과 더불어 한글의 바이블인 《훈민정음》을 30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수출할 계획이다. 세계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인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제 한글은 국가성장의 에너지로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때다.

#### 해외 한글교육... '인정'·'소통'의 키워드

"우리나라는 약 700년 전인 13~14세기에 13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이젠 역전됐다고 봐요. 몽골민족, 소위 유목민(몽골족)을 디지털 노마디즘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우리나라가 곧 신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이 원장은 지난 20세기처럼 열세한 나라를 언어로 지배하려는 낡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와 언어가 가장 다양한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디지털 신유목민인 우리 한글이라는 점이다.

이 원장은 한국어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글교육을 꼽는다. 그 비전속에는 '인정'과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양립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문화의 동반자 관계에서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과 그 소통방식은 한글이다. 한글은

문화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의 내면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내년부터 아시아지역에 한국어문화학교(가칭)를 100군데 설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영어 조기교육 때문에 얼마나 들떠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국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의 표출이에요. 우리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원장은 우리 민족이 한글의 창제정신(과학성, 민주성)에 자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괴테가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독일어가 논리적인 언어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우리 국어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남북 언어장벽 해소, '남북공동 학술회' 예정

평생 책만 읽을 수 있다면 몽골 벌판에 오두막을 짓고 살 수 있다는 이 원장. 활자문화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설명한다.

《구텐베르크에서 은하계까지》라는 책에서 인류역사의 발전은 활자에 근거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루한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인류사를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바로 책이고,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원장은 남북간의 언어통일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한다.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남북언어의 점진적인 통일방안이 모색돼 있지만, 문제는 전문용어에 있다. 예를 들면 '햇팬츠'와 '한 뺨 바지'의 차이다. 이러한 골을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언어장벽을 없애기 위해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원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국어의 위상 강화다. 언어와 언어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밑바탕에는 국민들이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힘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한글**

취재\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